

2023.4/4분기 미국 GDP 성장률(속보) 3.3%

1. 2023.3/4분기 미국 GDP

- '23.4/4분기 GDP성장률(전기비 연율)은 민간투자, 소비,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전분기(4.9%)보다 낮은 3.3%를 기록
 - 개인소비('23.3/4 3.1% → 4/4 2.8%)는 서비스*(2.2% → 2.4%)의 오름세가 확대되었으나, 재화**(4.9% → 3.8%)의 오름세가 축소되면서 증가폭이 낮아짐 <성장률 기여도: '23.3/4 2.11%p → 4/4 1.91%p>
 - * 음식 서비스 및 숙박(18.0% → 19.5%), 헬스케어(17.5% → 21.8%) 등의 증가폭 확대
 - ** 자동차 및 부품(-1.8% → -1.7%)의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여가 관련 재화 및 차량(30.5% → 20.9%)의 증가폭이 크게 축소
 - 민간투자(10.0% → 2.1%)는 재고투자* 증가가 지속된 가운데 구조물(11.2% → 3.2%), 주택(6.7% → 1.1%)의 오름폭 축소되면서 증가폭이 크게 낮아짐 <성장률 기여도: 1.74%p → 0.38%p>
 - * 재고투자의 성장률 기여도: '23.3/4분기 1.27%p → 4/4분기 0.07%p
 - 순수출은 수출(5.4% → 6.3%)의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, 수입(4.2% → 1.9%)은 축소되면서 플러스 성장기여도를 지속 <성장률 기여도: 0.03%p → 0.43%p>
 - 정부지출(5.8% → 3.3%)은 연방정부의 국방(8.4% → 0.9%) 및 비국방(5.5% → 4.6%) 지출과 더불어 지방정부(5.0% → 3.7%) 지출도 오름폭이 낮아지면서 증가세가 축소 <성장률 기여도: 0.99%p → 0.56%p>

(% , 전기비 연율)

	2021		2022				2023				
	연중	연중	1/4	2/4	3/4	4/4	연중	1/4	2/4	3/4	4/4
GDP	5.8	1.9	-2.0	-0.6	2.7	2.6	2.5	2.2	2.1	4.9	3.3
개인소비	8.4	2.5	0.0	2.0	1.6	1.2	2.2	3.8	0.8	3.1	2.8
민간투자	8.7	4.8	6.2	-10.6	-7.6	3.4	-1.2	-9.0	5.2	10.0	2.1
비주택 (구조물)	5.9	5.2	10.7	5.3	4.7	1.7	4.4	5.7	7.4	1.4	1.9
(설비)	-3.2	-2.1	-1.2	-0.5	-1.3	6.5	12.7	30.3	16.1	11.2	3.2
(지식재산생산물)	6.4	5.2	16.8	4.9	5.6	-5.0	-0.1	-4.1	7.7	-4.4	1.0
주택	10.4	9.1	11.4	8.7	7.1	6.1	4.3	3.8	2.7	1.8	2.1
재고증감 ¹⁾	10.7	-9.0	-1.8	-14.1	-26.4	-24.9	-10.7	-5.3	-2.2	6.7	1.1
순수출 ¹⁾	0.26	0.62	-0.07	-2.05	-0.66	1.61	-0.31	-2.22	0.00	1.27	0.07
수출	-1.25	-0.48	-2.59	0.56	2.58	0.26	0.58	0.58	0.04	0.03	0.43
수입	6.3	7.0	-4.6	10.6	16.2	-3.5	2.7	6.8	-9.3	5.4	6.3
정부지출	14.5	8.6	14.7	4.1	-4.8	-4.3	-1.7	1.3	-7.6	4.2	1.9
GDP 디플레이터	-0.3	-0.9	-2.9	-1.9	2.9	5.3	4.0	4.8	3.3	5.8	3.3
근원 PCE상승률	4.6	7.0	8.4	9.1	4.5	3.9	3.6	3.9	1.7	3.3	1.5
	3.6	5.2	6.0	4.7	5.0	4.7	4.1	5.0	3.7	2.0	2.0

주: 1) GDP성장에 대한 기여도(%p)

자료 : BEA

작성자 : 엄태균 과장

2. 시장참가자들의 평가

- 시장에서는 '23.4/4분기 GDP성장률이 컨센서스(2.0%)를 상회한데는 재고투자 증가가 지속된 가운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이어간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,

향후에는 그간 누적된 통화긴축의 파급효과, 고용시장 둔화 등으로 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성장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

* Final sales to private domestic purchasers(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최종판매 %):
'23.2/4 1.7 → 3/4 3.0 → 4/4 2.6

- '23.4/4분기 근원PCE 물가상승률(2.0%, 전기비 연율)이 시장 컨센서스(2.0%)에 부합하고 하락 추세를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<주요 투자은행 등의 코멘트>

- **(Morgan Stanley)** 재고투자가 플러스 성장기여도를 지속한 가운데 견조한 최종 민간소비지출 및 민간투자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보임. 24년에는 통화긴축이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수요의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
- **(UBS)** 높은 수준의 재고투자 및 순수출 성장기여도로 '23.4분기 GDP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시현. 2분기 연속 증가한 재고투자는 향후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.
- **(RBC)** 소비지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완화되었음. 가계지출 증가가 소득 증가를 앞서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인 여타 지표들과 달리 저축이 소폭 감소하였음
- **(ING)** 긴축적인 통화정책 및 신용여건의 영향으로 '24.1분기에는 GDP 성장이 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. 재고투자는 마이너스 기여도로 전환되고 소비 모멘텀도 둔화될 것으로 보임. 투자도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라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- **(Goldman Sachs)** '23.4분기 GDP 증가율이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재고투자 기여도가 커 개별 구성요인들은 그리 강한 모습은 아니었음. 다만 수요가 민간 소비 및 정부지출을 중심으로 강한 증가세를 지속. 재고투자가 둔화되더라도 강한 성장 모멘텀을 바탕으로 '24.1분기 GDP가 견조한 흐름을 보일 전망
- **(CITI)** 정부지출, 순수출, 재고투자를 중심으로 '23.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. 금년에는 금리 하락 및 금융여건 개선이 주택, 내구재와 같은 금리 민감부분의 수요 개선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, 고용시장 약세로 인해 결국 수요도 둔화될 전망
- **(Barclays)** 재고투자 증가는 소비지출이 견조함을 반영. 기 발표된 '23.11~12월 데이터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내일 발표될 12월 근원PCE 물가가 0.2%를 기록하여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를 충족할 전망